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첫 공판...입장차 ‘극명’

15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부녀가 진짜 범인인지 가리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확정받은 A(74)씨와 그의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건의 공동 피의자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들의 아내이자 엄마였고 검찰이 범행 동기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목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의 재심은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박준영 변호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확정판결 후 10여년 만에 열리게 됐다.

부녀의 형 확정기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2심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던 거라 재심 대상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항소심이다.

이 재판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함에 따라 열렸던 터라, 이날도 검찰은 그대와

검찰 “유죄 인정” vs 변호사 “증거 은폐”...다수 증인 예정 부녀 관계 제보 진위 등도 쟁점...내년 2월11일 재판 재개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피고인들의 자백과 정황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입장과 함께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했다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을 비

추는 CCTV에 A씨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는 등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요증거를 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박 변호사는 극명히 갈리는 서로에게 반박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C 검사와 D 수사관은 양측 모두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신청자 중 양측 모두 동의하지 않은 이도 있어 이에 대한 채택 여부와 함께 증인 최종 확정에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미확정된 증인 중에는 최초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기능의 당시 과장과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자백을 받아냈다는 E 수사관도 있는데, 박 변호사는 “제보자로 지목된 경찰은 (제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신문할 증인을 선별한 재판부는 다음 해 2월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박 변호사가 신청한 2명이 나올 예정이다.

첫 재판이 끝난 뒤 A씨와 B씨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무죄면 진범이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이기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안재영 기자



“자원봉사, 온기 나눔 함께해요” 3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온기 나눔 ‘2024 서구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힘찬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연탄재 폐기’ 언쟁 중 친척 살인미수 50대 ‘중형’

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 5년’ 유지 판결

연탄재폐기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

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14일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숙박업소 ‘담배꽂초 화재’...방화 여부 조사

여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경찰이 투숙객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2시56분께 여수시 봉산동 소재 숙박업소의 2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화재를 완결했다.

화재로 투숙객 A(50대)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객실에 있던 1명도 대피했다. 또 불이 난 객실 20㎡와 집기류가 소실돼 소방 추산 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담배꽂초를 투척해 불이 났다는 등 방화로 추정된다

는 소견을 내놨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이 붙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시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방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택시요금 시비 만취 30대, 경찰차에 ‘주먹질’

광주 북부경찰, 현행범 체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경찰차의 ‘보닛’을 내려친 30대가 입건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공물물건손상 혐의로 A(3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요금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보닛에 주먹질을 해 손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마사지 업소서 마약 투약 40대 긴급체포

목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목포 한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목포시 산동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 기기 등 증거를 확보했다.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장흥서 경차가 경운기 추돌...80대 사망

장흥 한 도로에서 경차가 경운기를 추돌해 피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한 도로에서 A(20대·여)씨가 몰던 경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80대)씨가 도로 인근 도랑에 빠지는 등 큰 충격

을 받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햇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경운기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시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동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